

정답표 [B형]

출제위원	평가위원	출제위원장
	기획위원	관리대표

시험 종류: 제21회 일반한국어능력시험 영역: 중급 표현(어휘 및 문법)

문항번호	정 답	배 점				
1	③	3				
2	②	3				
3	④	3				
4	②	3				
5	④	3				
6	①	3				
7	③	4				
8	②	4				
9	①	4				
10	②	4				
11	④	3				
12	④	3				
13	①	3				
14	③	3				
15	③	3				
16	④	3				
17	②	3				
18	④	3				
19	③	3				
20	②	4				
21	①	4				
22	③	3				
23	①	3				
24	②	4				
25	③	3				
26	①	3				
27	④	4				
28	①	4				
29	③	4				
30	④	3				
답지 빈도	답지번호 정답 수	① 7	② 7	③ 8	④ 8	계 30

정답 및 채점 기준표 [B형]

출제위원	평가위원	출제위원장
	기획위원	관리대표

시험 종류: 제21회 일반한국어능력시험

영역: 중급 표현(쓰기)

문항 번호	정 답	배점				
31	②	4				
32	③	4				
33	①	4				
34	③	4				
35	②	4				
36	①	4				
37	③	4				
38	④	4				
39	①	4				
40	④	4				
답지 빈도	답지 번호	①	②	③	④	계
	정답 수	3	2	3	2	30

문항 번호	모범 답안 및 채점 기준(주관식)	배점
41	6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깐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진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좋아졌다. 4점: 친구를 만나고 이야기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 연결어미, 종결어미로 문장의 의미가 이상해지는 경우 각각 -2 ※ 형태·철자 오류: 1개 -1, 2개 이상 -2	6
42	6점: 비가 오더라도 이전에 계획한 대로 행사가 진행된다. 비가 와도 이전에 계획한 대로 행사가 진행된다. 비가 온다고 해도 이전에 계획한 대로 행사가 진행된다. 비가 오지만 이전에 계획한 대로 행사가 진행된다. 비가 오더라도 이전에 계획한 것처럼 행사가 진행된다. 비가 오면 이전에 계획한 행사라도 진행되지 않는다. 4점: 비가 오고 이전에 계획한 대로 행사가 진행된다. 비가 오더라도 이전에 계획했지만 행사가 진행된다. ※ 연결어미, 종결어미로 문장의 의미가 이상해지는 경우 각각 -2 ※ 형태·철자 오류: 1개 -1, 2개 이상 -2	6

문항 번호	모범 답안 및 채점 기준(주관식)	배점
43	6점: 마시는 장소/곳이 아니라 4점: 마시는 곳이 아니고 2점: 마시는 곳 말고 ※ 형태·철자 오류: 1개 -1, 2개 이상 -2 ※ 어휘 오류: -2	6
44	6점: 게으르다는 말/소리/이야기를 게으름뱅이라는 말을 4점: 게으르다고 많이 잔다는 말/소리/이야기를 ※ 형태·철자 오류: 1개 -1, 2개 이상 -2	6
45	6점: 보상/요인 못지않게 보상/요인뿐만 아니라 보상/요인만큼이나 3점: 보상보다(는) 보상 외에 보상도 ※ 형태·철자 오류: 1개 -1, 2개 이상 -2	6
46	· 제시 내용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제시 내용당 -5 · 분량 400자 이하 / 600자 이상: 100자당 -5 · 철자 및 문법 항목: 1~3개 -1, 4~6개 -2, 7~10개 -3 11~15개 -4, 16개 이상 -6 < 모범 답안 >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내가 받은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편지 묶음이다. 이 선물은 초등학교 동창한테서 2년 전에 받았다. 그 친구와 나는 초등학교 6년 동안 내내 같은 반이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나는 서울로 전학 오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자매라고 부를 만큼 단짝이었던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무척 슬펐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한 번씩은 꼭 편지를 주고받자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서울로 온 지 얼마 안 되어 내가 유학을 떠났기 때문이다. 귀국 후에 정신없이 지내고 있을 때 부모님 댁으로 한 묶음의 편지가 도착했다. 놀랍게도 편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 친구가 보내온 것이었다. 나에게 보내려고 편지를 썼지만 차마 보내지는 못했다는 말과 함께 10여 년 동안 그 친구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적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 편지에 정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했다. 부모님 외에도 늘 나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뒤로 우리는 다시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 내 인생에서 그 친구가 나에게 보내 준 것만큼 기억에 남는 선물 이 있을까? 친구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나는 친구의 마음을 받았다.	30